

교육·일자리·정주 연결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사회적경제 기반 교육생태계 구성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예비후보가 교육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새로운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20일 "전북교육이 학교 안에 머물러 지역경제와 분리돼 있다"며 "교육을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사회적경제 교육모델'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와 학교협동조합 확대를 통해 교육과 지역 문제 해결을 연결한다. 연간 100개 이상의 청소년 프로젝



트를 운영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단계적으로 늘려 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급식과 교재, 돌봄 등 교육재의 공공구매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 예산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는 지역 사회와 연계해 운영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아울러 학교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평생학습 거점으로 전환해 야간·주말 프로그램과 노년층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교실 중심의 이론 교육을 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과 일자리가 연결될 때 지역의 미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북대학교 총장과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청초경 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상근 기자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이 21일 기초학력 선도학교인 남원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남원초 '1교실 2교사제' 성과 확인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기초학력 책임교육 현장 점검

"선도학교 내년 60%까지 확대 배움에 소외 없이 지원 강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 권한대행은 21일 기초학력 선도학교인 남원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학습 결손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지난해 99개교에서 올해 369개교로 대폭 확대해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까지 운영하고 있다. 남원초는 '1교실 2교사제'를 통해 담임교사와 전문교원이 협력수업을 진행하며 모든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

는 수업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운영 결과 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학습지연 대상 학생들의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 권한대행은 5학년 협력수업을 직접 참관한 뒤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교원 배치와 운영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 권한대행은 "협력수업은 학생 중심의 책임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년에는 선도학교를 전체의 60%까지 확대해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4월 22일 '지구의 날'... 탄소 줄이기 앞장

전북교육청, 폐가전 수거·소등 행사 동참... 자원순환 교육 효과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보호 실천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자원순환 실천 챌린지와 전국 동시 소등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실천 챌린지는 전주사태활용센터와 연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교육청과 전북 과학교육원, 남원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소형 가전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총 120kg의 폐소형 가전이 모였으며, 이는 약 264.6kg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수거된 가전은 분해 과정을 거쳐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단순 수거를 넘어 자원순환 교육과 실천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이 함께한 환경 실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전국 동시



전북교육청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자원순환 실천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원순환 실천 챌린지는 전주사태활용센터와 연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소등 행사에도 참여한다. 직원들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게기가 됐다"며 "짧은 소등만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청렴한 교육행정 구축 고위공직자 중심 대응 전략 마련

도교육청, 청렴정책 토론회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한 교육행정 구축을 위한 고위공직자 중심의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분청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실시된 청렴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운동부 불법잔존금, 공사·계약 유착 의혹 등 외부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와 함께 인사 불공정, 갑질 문화, 신고 시스템 불신 등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분청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패 취약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노 공동 청렴 거버넌스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현장 중심 실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강조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북형 청렴 모델' 고도화를 추진하

고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의 청렴 인프라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이제는 고위공직자부터 앞장서 '지시하는 청렴'이 아닌 함께 실천하는 청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계약업무 '찾아가는 멘토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계약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1일 원주 창의예술미래공간에서 전주·완주 지역 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약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계약업무 지원 멘토 10명이 참여해 참석자들을 소규모 분임으로 나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사전 접수된 질의를 중심으

로 약 90분간 진행된 상담에서는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해법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신 법령 변화, 물품·용역·공사 계약 절차, 수익계약의 공정성 감사 지적 사례, 계약해지 및 지연배상금 처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뤄졌다. /오상근 기자

올 영어중점학교 17곳 운영

전북교육청, 영어 공교육 질 향상 일환... 교과형 등 방식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어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어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9개교 등 총 17개교를 영어중점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사용 기회 확대가 목표다.

영어중점학교는 정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운영되며, '영어교과형'과 '영어몰입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어교과형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영어몰입형은 일부 일반 교과까지 영어로 진행해 자연스럽게 언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21일 영어중

점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수업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 방안과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진행된 분임 협의에서는 각 학교의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적용 방안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영어중점학교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협력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데이터 기반 '스마트 진로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중등 진로 교육 플랫폼 활용 역량강화 연수 개최

커리어넷·YEPP 등 주요 진로·창업 플랫폼 활용법 중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진로교육 혁신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1일 우석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진로 담당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등 진로 교육 플랫폼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능형 진로 정보망 고도화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커리어넷과 YEPP 등 주요 진로·창업 플랫폼 활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실효성을 높였다.

커리어넷 연수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서비스 기능 소개와 함께 학생 상담 시 진로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로드맵 설계 사례가 공유됐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상담 전문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진 창업 플랫폼(YEPP) 연수에서는 가상 기업 설립과 운영 방법,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활용 방안, 원격 영



상 진로 멘토링 등 학생 참여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담 역량을 갖추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진로교육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미래 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 14.4대 1

53명 선발에 763명 지원

6월 20일 필기시험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14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6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53명 선발에 76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4.4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직렬별로 보면 교육행정직 일반은 36명 모집에 561명이 몰려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3명 선발에 12명이 지원해 4.0대 1,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1명 선발에 21명이 지원해 21.0대 1을 기록했다.

기술직의 경우 전산직은 1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 37.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공인 일반기계는 7.0대 1, 일반전기는 7.5대 1, 속기는 5.0대 1 수준이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시설관리 일반이 6명 선발에 96명이 지원해 1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보훈부 추천 전형은 2.0대 1로 집계됐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0일 실시되며, 시험 장소는 5월 28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0일 발표되고, 이후 8월 14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장수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21일, 장수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 장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장수중학교 임창식, 부회장에 장수초등학교 강인천, 총무에 계남초등학교 김훈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역사문화권 5관왕, 장수군'을 주제로 지역 이해를 높이고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역사 연수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기자